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대림1주일

<http://www.103skcc.org>

제34권 52호(나해) 2014년 11월30일

[묵상]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깨어있어라.

기다림은 우리 일상이다.

너무나 자주,

그리고 많이 기다렸기에 익숙할 만큼 가까이에 있다.

기다림에는 희망이 있어서 기쁘고,

사랑하는 사람은 만남 그 자체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행복하다.

기다림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맞이할 그 날의 기쁨도 클 것이다.

대림절이 있음은 우리에게 은총이다.

매년 대림절이 어김없이 되돌아오지만,

기다림의 은총을 체험할 때에만

우리에게는 신앙의 성숙이 가능하다.

기다림은 준비이다.

준비가 없다면 기다림의 시간은 의미가 없다.

더구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정해진 날이 아니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 날은 갑자기 온다.

오늘일 수도 있고,

아주 먼 뒷날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반드시 그 날이 온다는 것뿐.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아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아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4:3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 꾸리아 3째주 - ● 요셉회 ● 사목회장단 4째주 - ● 사목회 ●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3:0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민찬기 요한, 김명옥 로즈마리&오준석 요셉, 이용식베드로, 이강일윤일요한& 박덕기카타리나, 박문규프란치스코& 최옥선 클라라
	(생)김일선 베드로, 김자일시몬&혜진&클레어&찰리, 김세진요한&상희, 김병조마틴& 박지연 요안나
주 일 낮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박무성, 고준희 제임스, 하재도, 김옥순 소피아, 이석진 가브리엘, 이종갑 부르노, 이철우 야고보, 최경화 스테파노, 신현태, 박준구 요한, 반순애 안나, 박희성 테레사, 서정록&백덕돌&서진경 안드레아, 김계성 아가다, 김현숙 마리아
	(생)반비오&반나영체칠리아, 홍석인 체칠리아, 변혜경율리안나, 서성용 베드로, 토런스북가정들, 오예령 수산나, 김재민 앤드류, 김앤디 앤드류, 박삼순, 오세원 아타나시오&오혜숙 루시아, 민석준 토마스 & 미애 & 민영준 마르코, 김일선 베드로, 김은 안나, 우경석 사도요한, 이재용 안드레아, 고예나, 최석원 안드레아 & 박민아 & 최솔, 김지훈 대건안드레아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 (Isaiah) 63, 16-17, 19, 16, 2-7

화답송 ①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커룹들 위에 좌정하신 분, 광채와 함께 나타나소서.
당신 권능을 떨치시어, 저희를 도우러 오소서. ①
○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들, 당신 위해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①
○ 당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위해 키우신 인간의 아들에게 손을 얹으소서.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이다. 저희를 살려 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오리이다. ①

제 2독서 코린토 1서 (Corinthians) 1, 3-9

복 음 ① 알렐루야.
환호송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①

복 음 마르코 (Mark) 13, 33-37

영성제송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30	129	124
봉헌	255	261	129
성체	418	300	106
파견	127	123	131

올바른 성령 이해

성령과 예언

3. 성령에 관한 새로운 이해

2) 성령에 관한 새로운 각성

성령에 관한 새로운 각성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에서 활짝 피어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선포하고 개최한 요한 23세 교황(†1963)은 공의회의 성공을 위해서 “새로운 성령 강림으로 우리의 일상을 당신의 경이로움으로 새롭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특별히 간청하였다. 이 공의회를 마무리 지은 바오로 6세 교황(†1978)도 “교회의 일차적 급선무는 언제나 성령 강림을 생활화하는 것이다.” 라고 천명하였다.

성령의 특별한 도움을 청하면서 개최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먼저 교회가 하느님에게서 유래되었다고 천명한다. 곧 교회는 성부의 보편적 구원 계획, 성자의 파견, 성령의 성화 사업을 통해서 설립되었고, 그러므로 “은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치로 모인 백성’으로 나타난다.” 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삼위일체 신비 안에서 설립된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마치 인체 안에 있는 영혼과 같이 교회의 영적 생명 원리로 작용하신다. 교회의 “머리와 지체들 안에 현존하시는 한 분이신 똑같은 성령께서는 온몸에 생명을 주시고, 온몸을 일치시키시고, 움직이신다. 그래서 거룩한 교부들은 성령의 임무를, 생명의 원리인 영혼이 인체 안에서 하는 일과 비교할 수 있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의 제도와 구조도 교회의 영혼과 같은 성령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성령께 순종하고 봉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교회의 사회적 조직도 교회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성령께 봉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에페 4, 16 참조).” 또한 성령께서는 “교회의 필요에 매우 적합하고 유익한” 여러 가지 은사(카리스마)와 직무들을 통하여 교회를 기르시므로 교회는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공의회는 평신도들도 이 은사를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은사 사용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언급한다. 성령께서는 평신도들이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특별한 은총을 주신다(1코린 12, 7 참조). …… 아주 단순한 것이라 할 지라도 이런 은사를 받았으므로 모든 신자에게는 교회와 세상에서 인간의 행복과 교회의 건설을 위하여 이 은사를 사용할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이 은사는 ‘불고 싶으신 데로 부시는’(요한 3, 8) 성령의 자유로운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과 특히 자기 목자들과 일치를 이루며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은사의 순수성과 올바른 사용에 대한 판단은 목자들이 할 일이다. 이 판단은 성령의 불을 꺼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은 보존하려는 것이다(1테살 5, 12, 19, 21 참조).”

<◆계속>

깨어 있어라

이제 본격적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희망의 대림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1월 위령성월이 끝나며 대림 시기로 이어지는 전례 시기가 참 절묘합니다. 지금 여기 깨어 있는 사람들이 진정 살아있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반면 자기를 잊고 잠들어 있는 불행한 영혼들도 많을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무기력과 무감각, 무의욕의 '일상의 늪'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서 온전히 하느님 사랑의 현존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종파를 초월하여 모든 수행생활이,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생활이 지향하는 바도 깨어 있는 삶입니다. 주님은 당신 제자들의 공동체는 물론 대림 시기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깨어 있어라.”(마르 13,36-37)

주인을 주님으로 바뀌어도 무방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은 물론 믿는 모든 이들이 이 은총의 대림 시기, 오매불망(寤寐不忘) 깨어 당신을 기다릴 것을 신신당부하십니다. 깨어 당신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주님께는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진정 깨어 있는 영혼들이 아름답습니다.

깨어 있음은 기다림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깨어 주님을 기다림입니다. 깨어 있음은 희망입니다. 깨어 있을 때 저절로 사라지는 절망입니다. 깨어 있음은 빛입니다. 깨어 있을 때 저절로 사라지는 불안과 두려움의 어둠입니다. 깨어 있음은 충만입니다. 주님 사랑의 충만입니다. 깨어 있음은 갈망입니다. 주님께 대한 갈망입니다. 깨어 있음은 기도요, 침묵입니다. 깨어 있음은 찬미이며, 감사입니다. 깨어 있음은 평화요, 기쁨입니다. 깨어 있음은 순수입니다. 깨어 있음은 구원입니다. 결국은 깨어 있음에 대한 예찬이 되고 말았습니다.

깨어 있음에 반드시 전제되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여 깨어 있음은 그대로 주님의 은총임을 깨닫습니다. 깨어 있지 못해 세상 것들에 중독이요, 세상 우상들에 종이되어 삽니다. 그러

니 영혼의 건강에, 영혼의 병과 상처의 치유에 깨어 있음보다 더 좋은 약도 없습니다. 깨어 있을 때 깨끗한 마음이요, 샘솟는 깨달음에, '참 나'의 삶입니다. 깨어 있음, 깨끗한 마음, 깨달음이 하나로 연결되어있음을 봅니다.

과연 하루 중 깨어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참으로 '깨어 있기'의 영성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실 수도자들이 끊임없이 바치는 찬미와 감사의 성무일도 역시 '깨어 있기'의 영성훈련입니다.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깨어 있는 삶입니다. 주님 안에 깨어 있는 영혼만이 이사야처럼 주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저희 아버지십니다. 저희는 진흙, 당신은 저희를 빚으신 분, 저희는 모두 당신 손의 작품입니다.”(이사 64,7)

끊임없이 깨어, '제 자리'에서 '제 일'에 충실할 때 주님을 닮은 주님 손의 작품이 됩니다. 하느님은 참으로 깨어있는 우리들을 끝까지 굳세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잡을 데가 없게 해주실 것입니다.(1코린1,8) 아멘.

◆이수철 신부 /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나를 다스린다는 것

허물을 벗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허물은 타인이 씻어주는 것이고

타인은 금세 나를 잊기 때문입니다.

좋은 평판을 내려놓기란 몹시 어렵습니다.

그건 내가 벗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은 이제 기억조차 못하는 단 한 번의 영광을

평생 왕관처럼 쓰고 우쭐대기란

얼마나 쉬운 일이던지요.

◆이영 아녜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신덕레 데레사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이민상 요한	장영진 안토니오
제2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이순자 비비안나	정영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동 2,3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신덕레 데레사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서 2반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시다.

‘대림(待臨)’은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의미로서, ‘도착’을 뜻하는 라틴어 ‘아드벤투스(Adventus)’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천 년 전에 이미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례를 통하여 매년 되풀이함으로써, 그분께서 이 루신 구원의 신비를 새롭게 기념합니다. 교회는 새해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나해’의 전례주기를 따르며, 첫번째 대림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 **참회예절 : 오후 7시**
- **고해성사 : 오후 7시30부터(주일학교 성사일정 같음)**
- **대림시기중(대림1주부터 매일) 드리는 고해성사는 판공성사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미사전에 드리는 고해성사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신부님의 대림판공성사 출장관계로 평일미사 시간을 변경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12월 9일(화) 아침미사(오전 8시30분)로 변경
- 12월 16일(화) 아침미사(오전 8시30분)로 변경
- 12월 17일(수), 18일(목) 아침미사(오전 8시30분)로 변경

- 오늘주일(30일)은 주일학교, 한국학교 수업이 없습니다.
- 문의 : 주일학교 교장 김낙기 바오로 ☎(310)709-3343

- 일시 : 2014년 12월6일 (토요일) 오후5시
- 장소 : 고려정
- 회비 : 15불(1인), 나머지는 양업회부담

예약 인원파악을 위하여 충무께 참석여부를 알려주십시오.

- 충무 : 김관기 라파엘 ☎ (310)678-8222

- 일시 : 2014년 12월6일 (토요일) 오후6시
- 장소 : 성 바오로 성당 (St. Paul Korean Church)
- 티켓 : 10불
- 문의 : 남해나 분다 ☎ (310)384-3289

- 일시 : 12월13일(토요일) 저녁 6시
- 장소 : The Center at Sycamore Plaza
(Lakewood Community Center)
- 연락처 : 정동호 하삼바오로 ☎(310)780-9055

- 일시: 2014년 12월 14일 주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강당
- 대상: 레지오 활동단원
- 문의: 남 성철 베네딕도 ☎ (310)408-1443

- 11월30일(주일) * 토서 2반 : 복어국 (\$3)
* 주일학교 : 수업없음
- 12월7일(주일) * 소공동체 : 김밥 (\$4)
* 주일학교 : 짜장밥 (10.11학년)

교무금	강미순 민기남 유영균 장영진 최수복	강순복 박상준 육근주 정열모 홍광선	권태만 박영희 이윤옥 정혜영 황인종	김광호 박완철 이재정 정훈모 한길선	김정선 신윤원 이현주 조준제 이명	김향선 안재경 임순 지경수 이명	성전현금	강미순 박상준 정열모 황인종	경철호 박완철 정혜영 한길선	권태만 유영균 정훈모 익명	김정선 이재정 조준제	김향선 이현주 지경수	민기남 임순 홍광선
	합계 : \$2,850							합계 : \$1,880					
주일미사 현금 : \$2,828													

공지사항

◆ 주일학교 크리스마스 행사에 초대합니다.

- 일시 : 12월13일(토) 오후 2시~4시
- 장소 : 성전
- 대상 : 유치원~12학년
- 문의 : 주일학교 교장 김낙기 바오로

☎(310)709-3343

많이 참석하시어 주일학교학생들을 격려해주십시오.

◆한인 가톨릭 청소년대회

Korean American Catholic Youth Day

고등학생들은 모두모여라! 함께모여 우리의 문화와 신앙을 나누자!!!

- 주제 : "Joy of the Gospel"
- 장소 : Servite High School (애나하임)
- 대상 : 8학년 ~12학년
- 일시 : 2015년 1월 3일(토) 8:30am~7:30pm
- 참가비 : \$30 (by 12/21, \$40 after)
- 참가신청 : www.fiat.org
- 문의전화 : 714-772-3995 (Ext.106)

*점심식사와 기념셔츠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한국학교에서 함께 봉사하실 선생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분들의 연락을 바랍니다.

- 문의 : 한국학교장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 ☎(213)700-9399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타성당 관공성사일정

- 12월 9일 : 평화의모후성당
- 12월 10일 : 순교자성당
- 12월 11일 : 성마태오성당
- 12월 12일 : 성아그네스성당
- 12월 15일 : 성토마스성당
- 12월 16일 : 성바실성당
- 12월 18일 : 성프란치스코성당
- 12월 19일 : 성삼성당

노공동체 12월 반모임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율리아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이순자 비비안나 991-4838 12/12(금)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민수 바오로 986-1890 12/20(토) 오후 6시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12/12(금) 오후 7시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 오780-3258	박근식 미카엘 294-9444 12/13(토) 오후 6시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이형상 요셉 991-8556 12/13(토) 오후 5시
	3	정광미프란체스카 617-1132	이금순 카타리나 424-230-1146 12/12(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김상근 바오로 625-3312 12/19(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이윤옥 마리아 634-6923 12/12(금) 오전 11시 강당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12/13(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율리아 404-1607	정병옥 율리아 404-1607 12/15(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1/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김윤진 카타리나 749-3151 11/8(토) 오후 7시
	3	1,2반과 같음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김관기 라파엘 541-3687 12/13(토) 오후 6시30분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12/16(토) 오후 4시 강당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변복순 베로니카 617-3568 12/16(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 회의

오후 1시

다음주 단체모임

☺ 서로 인사 합니다. ☺

124위 시복특집 < 13 > 김연이 올리안나(?~1801년)

김연이 올리안나는 양인 출신의 부인으로 한양에 살때 한신에 아가타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습니다. 그리고 1795년 이후에 여회장 강완숙의 집에서 주문모 신부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후 김연이는 자주 교리 강습이나 미사에 참여하면서 신앙을 키워갔습니다. 박해자들은 이집 저집 신앙을 전했던 김연이를 두고 '사학(邪學)의 매파(媒婆:혼인을 중매하는 늙은 여자)'라 하였는데, 이로써 김연이가 선교에 얼마나 열성적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연이는 강완숙과 한신에, 그리고 이기양의 집과 더불어 '폐궁'이라고 불리던 양제궁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당시 폐궁에는 왕실의 친족인 은언군(恩彦君)의 부인 송 마리아와 며느리 신 마리아, 그리고 궁녀 강경복 수산나 등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연이는 송 마리아를 주신부가 집전하는 미사에 참석하도록 인도하였고, 폐궁의 사람들을 강완숙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김연이가 송 마리아와 신 마리아를 모시고 강완숙의 집에서 미사에 참례하던 흥미로운 광경을 다음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몇몇 문초 기록에 따르면, 우선 주신부가 협실(夾室: 안방에 딸려있는 방) 가운데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안방에서는 강완숙이 경문(기도문 혹은 성서 구절)을 외우며 모여든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한편 1800년 12월 박해가 시작되자 김연이는 강완숙의 부탁으로 김계완 시몬을 자신의 집에 숨겨 주었습니다. 이어 다음 해 초, 황사영 알렉시오가 그녀의 집으로 피신해 왔고, 결국 이로 말미암아 그녀 자신도 위협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이는 마침내 송 마리아와 함께 미사에 참석한 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내 곧 포도청으로 압송된 그녀는 포도청과 형조에서 여러 차례 혹독한 형벌과 문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밀고하지 않았으며, 조금도 약한 마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만 번 죽더라도 천주교를 믿어 온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신앙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끝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던 김연이는 천주교 신자라는 죄목으로 사형 판결을 받고 강완숙, 강경복, 한신에 등 동료들과 함께 1801년 7월2일 서소문 밖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습니다.

◆ 서울대교구 홍보국취음

[전례 상식]

대림 시기 전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 대림 시기 전례는 복음 안에서 그 의미가 잘 드러나는데, 제1주일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로서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제2, 제3주일의 복음은 요한 세례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4주일은 요셉에게 한 예고(가해), 마리아에게 한 예고(나해),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다해)에 관한 복음입니다. 제2독서로 읽는 사도들의 서간은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가를 보여 줍니다. 그 예언들은 주님이 오실 것과 모든 백성을 위한 구원의 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들을 위한 기쁨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 「뜻을 알면 전례가 새롭습니다」 정의철 신부/ 생활성서

기쁨 발견의 영성

바람에 실려 / 푸르게 날아오는 / 소나무의 향기 같은 것
꼭꼭 씹어서 먹고 나면 / 더욱 감칠맛 나는
맛의 향기 같은 것
모든 사랑을 / 차별없이 대하고 사랑할 때의
평화로움 같은 것
누가 나에게 / 싫은 말을 해도 내색 않고
잘 참아냈을 때의 / 잔잔한 미소 같은 것
날마다 새롭게 / 내가 만들어 먹는
기쁨 과자, 기쁨 초콜렛, 기쁨 음료수
그래서 나는 평생 / 배고프지 않다
- 이해인의 시 <기쁨의 맛> -

자신만의 방식으로 날마다 기쁨을 새롭게 발견하고 요리하는 기쁨을 나름대로 표현해 본 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면 큰일날 것처럼 살고 있다고, 특히 신부 수녀들의 표정은 너무 근엄하고 경직되어 있어 가까이 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듣습니다. '좀 더 웃는 얼굴을 보여달라'는 주문도 많이 받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책 중엔 엘레나 포어터의 <파레아나의 편지>가 있는데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기쁨의 게임'을 실천하여 주인공이 온 마을 사람들을 희망과 기쁨으로 변화시켜가는 이야기입니다. 어느해 성탄 선물 뽑기에서 인형을 받고 싶어하는 어린 파레아나에게 지팡이가 주어지자 서럽게 우는 걸 보고 목사님인 아버지가 말합니다. "바보같이 울긴 왜 울어? 너에게 지금 이 지팡이가 필요 없다는 걸 기뻐하면 되잖니?" 라고요.

이 책을 읽고 나도 기쁨의 게임을 생활에 적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특히 주어진 상황이 안 좋을 때일수록 이 기쁨의 게임은 빛을 발해서 좋습니다. 잠깐 인내해서 오래 선물 받는 환희심을 기쁨의 게임은 가르쳐 줍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안들어 우울의 늪에 빠지려고 할 때, 인간관계가 어긋나고 복잡해질 때 나는 상황에 맞는 화살기도와 평소에 자주 연습한 기쁨의 게임으로 위기를 모면하곤 하였습니다. 기쁨의 게임을 하는 것은 병상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간호사가 체온과 혈압을 채러 올 때도 귀찮은 표정 대신 웃으며 대하고, 가장 힘든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을 적에도 '이렇게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음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며 기뻐하고, 문병 온 이들이 더러 맘에 안드는 말을 해도 '마음은 안 그런데 말이 헛나오는 거겠지.'라고 이해하면서 웃으니, 기쁨의 게임은 조금씩 더 발전해 갔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 시기에 우리는 대침소도 하고 김장을 하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성가연습을 하고 성탄 편지를 쓰고 은인들에게 선물할 과자를 구우며 기뻐할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방문하고 예수아기의 구유에 놓을 자신만의 선물을 준비하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맞이하는 이 기다림의 계절에 우리모두 기쁨의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실은 사랑의 승리자가 되는 비결이기도한 착한 마음과 겸손한 용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해인 수녀·시인 / 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 수녀회